

□ 2021.7.8.(목) 09:50:40 기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 (腾讯新闻)

较上日-6 <b>29</b> 本土现有确诊	较上日-78 <b>3675</b> 现有确诊	较上日+58 <b>119094</b> 累计确诊	较上日+10 <b>470</b> 无症状感染者	较上日+15 <b>6751</b> 境外输入	较上日+9 <b>5563</b> 累计死亡
------------------------------	-------------------------------	---------------------------------	--------------------------------	-------------------------------	------------------------------

○ 7월 7일 0시-24시 31개 省 확진자 총 17건, 그 중 해외유입 사례 15건(상하이 8건, 푸젠 2건, 허난 2건, 광둥 2건, 쓰촨 1건), 지역사회 감염 사례 2건(윈난).

□ 2021.6.28.(월)~7.8.(목)

○ 中 신규 확진자 17명 증가, 그 중 해외유입 사례 15건, 지역사회 감염 사례 2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이하 위건위)는 7일 0시~24시 본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17명(그 중 해외유입 사례 15건, 지역사회 감염 사례 2건, 신규 퇴원 환자가 28명, 사망자가 0명, 의심 환자는 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재 확진 환자는 447명(해외유입 418명), 누적 신고 확진자는 9만 1966(해외유입 6751명), 누적 퇴원 환자는 8만 6883명(해외유입 6333명), 누적 사망자는 4636명(해외유입 0명), 의심 환자는 4명으로 집계됐다.

위건위는 본토 이외 홍콩특별행정구에서 1만 1945명(퇴원 환자 1만 1643명, 사망자 212명 포함),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55명(퇴원 환자 53명 포함), 타이완 지역에서 1만 5128명(퇴원 환자 1만 11277명, 사망자 715명 포함)의 확진 환자가 집계됐다고 전했다.(卫健委, 2021.7.8.)

○ 中 외교부 “중국 측, 국제사회에 4.8억여 회분의 백신 제공”

왕원빈(王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코로나19 발발 이후, 중국 측은 백신이 전 세계의 공공재라는 ‘제1 속성’을 고수하면서 자체 수요가 많고 백신 공급이 빠듯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제사회에 4.8억여 회분의 백신을 제공했다”며 “(중국은) 전 세계에서 국제사회에 백신을 가장 많이 공급한 나라”라고 밝혔다.

왕 대변인은 당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중국 백신은 전 세계 5개 대륙에 걸쳐 거의 100개 국가에 제공됐다”며 “중국 측은 코백스(COVAX)에 1차로 1000만 회분의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여러 개발도상국과 함께 공동 연구개발 및 생산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관련 기업이 외국과 협력해 3차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중국 백신은 국제사회에서 좋은 명성을 얻었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널리 인정받아 100개 국이 넘는 나라들이 중국 백신 사용을 승인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긴급 사용 목록에 올렸으며 30 여명의 외국 지도자들도 앞장서서 중국 백신을 접종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왕 대변인은 “중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근성과 부담가능성을 실현하는 데 계속 기여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조건을 갖춘 모든 국가들이 행동에 나서고 약속을 지켜 백신의 공정한 분배와 사용을 촉진하고, 전 세계 방역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中国网, 2021.7.6.)